Vol. 22
2013. 6. 28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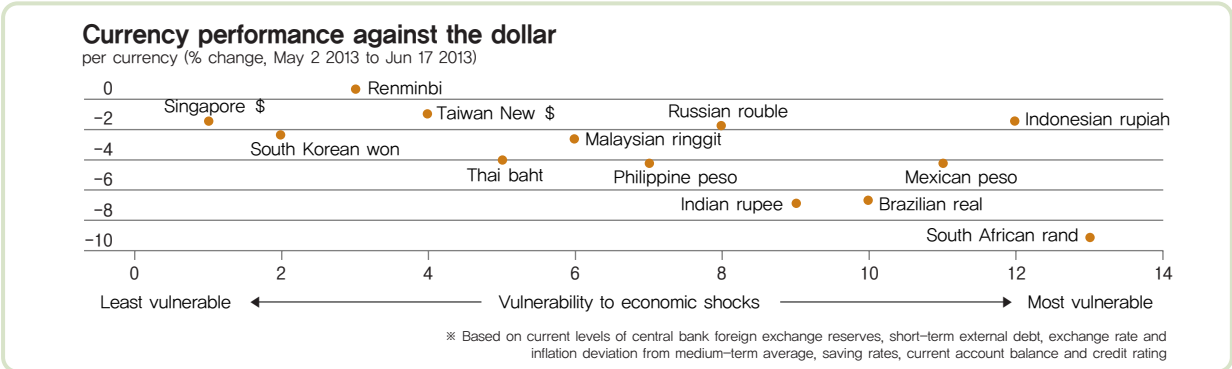
외풍에 강한 우리 경제

지난 5월부터 미국의 유동성 확대정책(QE3)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벤 버냉키 미국 연준(중앙은행) 의장이 금년 말부터 QE3를 축소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20일 전세계적으로 주가, 채권가격, 상품가격이 폭락하였는데 신흥시장국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6월 20일 FTSE 신흥시장국 주가는 4.2% 하락하여 2011년 9월 이후 일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경상수지 적자국의 통화가치 하락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5월 1일부터 6월 26일중 이들 국가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7.8%(터키)~12.9%(인도) 상승하였는데 이중 인도 및 터키 통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역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미국 연준의 유동성 확대정책 축소 움직임에 대해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에 대규모로 유입된 국제유동성의 이탈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은 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 신흥시장국으로 흘러 들었다. 2009~2012년 중 신흥시장국 주식 및 채권시장 등에 유입된 포트폴리오 투자는 6,036억달러로 연평균 1,509억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에도 총 145억달러 유입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투자확대기(2003~2007)의 연평균 232억달러의 6.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주가 급락 및 환율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월 2일부터 6월 26일중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2.7조원 순매도하였으며 주가는 9.1% 하락하였다.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4.8% 상승하였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다른 신흥시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3,281억달러(5월말)에 달하고 1~5월 경상수지도 225억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는 등 외환수급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자 영국의 Financial Times지는 주요 13개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경상수지, 환율 및 인플레의 중기 평균과의 괴리정도, 저축률, 국가신용도 등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여 게재하였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 취약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경제의 외풍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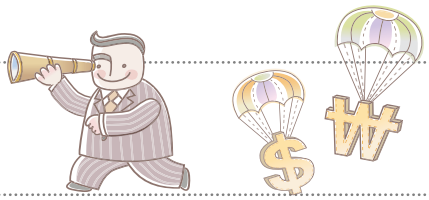


자료 : Financial Times(2013.6.23)

Vol. 22
2013. 6. 28

BS경제연구소

세상 둘러보기



부산항

부산항은 2012년 세계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물동량인 1,705만TEU(1TEU는 약 6m 짜리 컨테이너 한개)를 처리하며,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선전 항에 이은 세계 5위 컨테이너항만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2012년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억9,889만TEU로 이중 상하이가 16.4%의 점유율을 보였고 싱가포르 15.9%, 홍콩 11.6%, 선전 11.5%, 부산은 8.6%를 기록하였다. 국내 항구의 총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2012년 기준으로 2,254만TEU이며 이중 75.6%가 부산항을 통해 처리되었다.

• • •

부산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북항(20선석)과 신항(21선석)에 각각 5곳씩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북항과 신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각각 760만TEU(45%)와 944만TEU(55%)이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신항을 45개 선석, 연간 처리능력 1,600만TEU로 확대할 계획이다.

Humor

유머 [상술]

집을 보러 온 손님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열심히 설명했다.
"이 동네는 공기와 물이 좋아서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마침 장례 행렬이 그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중개인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다.
"저런, 환자가 없어 의사가 굶어 죽었구먼"

좋은 글 [어느 누구도 칭찬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 순간은 바로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을 때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찬사에 굶주려 있다.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다.
격려 받지 못하는 사람에겐 훌륭한 일을 해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칭찬 없이 살아갈 수 없다. – 소설가 조지 매튜 애덤스 –

Vol. 22
2013. 6. 28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 6월 24일 채권금리 급등 이후 하락 안정세

→ 외국인들은 벤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가능성 발언 이후에도 5/27~6/21 연속 국내 채권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다 6/24 돌연 123억원 순매도

▶ 중국 증시 폭락에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세

→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와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까지 부각됨에 따라 코스피는 6월 24일 23포인트 하락하며 11개월만에 1800선 붕괴

→ 27일에는 전일 미국 주가 상승 등으로 51.25포인트 급등

▶ 원/달러 환율 상승세

→ 달러화 강세 전망으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27일에는 하락

◉ 금리

	2012년말	2013. 4월말	2013. 5월말	6/21	6/24	6/25	6/26
기준금리	2.75	2.75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81	2.69	2.70	2.69	2.69	2.69
통화안정증권(1년)	2.78	2.57	2.66	2.73	2.77	2.71	2.71
국고채(3년)	2.82	2.49	2.78	3.04	3.12	3.02	2.97
회사채(3년, AA-)	3.29	2.85	3.14	3.40	3.48	3.38	3.36
회사채(3년, BBB-)	8.80	8.47	8.75	9.05	9.12	9.05	9.03

◉ 주가

	2012년말	2013. 4월말	2013. 5월말	6/21	6/24	6/25	6/26
KOSPI	1,997.1	1,964.0	2,001.1	1,822.8	1,799.0	1,780.6	1,783.5
美다우	13,104.1	14,839.8	15,115.6	14,799.4	14,659.6	14,760.3	14,910.1
니케이225	10,395.2	13,860.9	13,774.5	13,230.1	13,062.8	12,969.3	12,873.8
상하이종합	2,269.1	2,177.9	2,300.6	2,073.1	1,963.2	1,959.5	1,933.0

◉ 환율

	2012년말	2013. 4월말	2013. 5월말	6/21	6/24	6/25	6/26
원/달러	1,071.1	1,180.1	1,128.3	1,144.6	1,155.6	1,157.1	1,159.1
원/100엔	1,247.5	1,132.0	1,116.6	1,179.3	1,174.5	1,186.7	1,180.0
원/유로	1,416.3	1,451.3	1,471.4	1,515.3	1,514.5	1,519.2	1,515.9
원/위안	171.9	179.7	184.0	186.8	188.4	188.3	188.6
엔/달러	85.86	97.89	101.05	97.06	98.39	97.51	98.23